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12월 1일(월) 제703호 창간 185년 4월 11일 <주관>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권 주간 변재철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외)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0601-4152, 4158 FAX 961-4183 (통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오현면 원성리 산 89

서울 총학, 오승훈·강성삼 조 당선 “7000 외대인 만나며 외대 미래 일구겠다”

서울배움터 학생회 각급 단위는 지난 주 치열한 경선을 마치고, 앞으로 있을 상경대학총학생회장(오는 3일)의 각과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5·26일(수) 양일간 재직인원 6713명의 52.18%인 3509명이 투표에 참여한 총학생회장선거는 '98 총학생회장선거'의 기호 2번 오승훈(상경·경영 4)·강성삼(사·신방 4)조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노선으로(서양·영어 3)·김세윤(동양·대국 3)조를 누르고 당선됐다.

기호 1번보다 800여표가 많은 2153표를 얻어 32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오승훈은 “그간 선거가 끝나면 모두 같이

풍경에 단결하는 모습을 볼수 없어 아쉬웠다”며 “내년 한해 7000학우를 만나며 외대의 미래를 창출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낙선한 기호 1번의 노선호군은 “서로 비판하고 도와면서 열심히 살자”고 축하했다.

한편, 지난 25일(화) 치러진 서양대 학생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차재훈(포로투갈 3)·정기홍(영어 3)조가 1883표로 기호 2번 홍석준(독일어 3)·김나리(불어 2)조를 누르고 당선됐다. 약 38%(재적 243명, 투표 911명)의 낮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32대 서양

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차재훈군은 “진정 가슴아픈 것은 함께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층원을 학생들에게 철저히 검증받는 과정에서 내모습부터 밝을 대겠다”고 다부진 결의를 밝혔다.

또, 지난 24·25일(화) 치러진 사범대 학생회장선거에서는 단독입후보한 김진영(영교 2)군이 75%의 투표율과 90%가 넘는 찬성률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성환(서양·러시아어 4)군은 “정확히 중심이 되기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3면 허윤숙 기자

단체	선거율	투표율	후보(당선자)
서양대	·	38%	* 차재훈 정기홍
동양대	·	65.7%	* 이준석
사범대	·	79.9%	* 이연수
상경대	2·3일	·	* 연승연
사범대	·	75%	* 김진영
동아리연합회	·	64.9%	* 이상근 조경래

※는 당선자



32대 총학생회 선거가 끝났다. 외대인들은 무관심이 아니라, 참여로 의대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해년도 총학생회 간부들 뿐만 아니라 외대인 전체가 함께 의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당선된 오승훈·강성삼 기호 2번조 역시 공약을 실행해가면서 의대발전과 학생운동의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총장선거 둘러싸고 직원·학생 요구 분출 3일(수) 후보 5인 결정, 안총장 재출마 확실

오는 3일(수) 대강당에서 있을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15일(월)의 결선투표, 재단(학교법인)의 최종결정까지 2달간 일정을 치러질 6대 총장선거에 안병만 총장이 재출마할 것이 확실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직원과 학생들의 입장과 대응 또한 시작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총장선출은 교황직 선출방법을 따르고 있다. 즉 1차 예비선거에서 단 한표라도 나온 사람중 10명이 후보가 되고 2차 선거에서 그 중 5명을 최종결정(3일)하게 된다. 후보로 결

정된 5명의 후보자는 공약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15일(월) 결선투표를 진행한 끝에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된다. 이 중 1명을 재단이 이사회의를 거쳐 결정·임명한다.

후보자는 예비선거를 거친 후에도 결정 되므로 아직은 예상 후보들의 활동이 수면위로 부상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직원노동조합은 “총장은 해군구성원 전체를 신임을 얻은 이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난 24일(월) 장전 노동조합장이 교수협의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전제와 교수협의회의 김종대 총무는 현재 총장선출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전제는 “현재의 총장선출절차는 단지 후보선출제일 뿐 총장선출제는 아니다”라며 “학원 3주제인 교수·학생·직원들은 물론 동문과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거교회 총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후보가 결정되면 노조의 입장과 관련한 질의서를 각 후보에게 보내

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견을 밝힐 계획이다. 학생들의 경우, 서울배움터 32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오승훈(상경·경영 4)군은 “안병만 총장의 공약을 검토하고 이행정도를 상정한 후 여론 중심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겠다”며 “학생요구안을 정례회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 총장선출절차는 교수협의회의 회칙에만 의거,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는 봉쇄돼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10면 김민식 기자

전국대학 선거, 운동권 후보 강세 학생운동필요성 및 변화 기대 결과

지난 달 29일(토)까지 진행된 전국 대학의 학생회 선거 결과, 운동권 성향을 지닌 총학생회장 당선된 대학은 56%, 비운동권이 당선된 대학은 1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층원 주류인 자주계열은 우리 학교 서울배움터를 포함해 32개 대학에서 당선됐고, 연세민주계열은 14개 대학에서 당선됐다. 자주계열의 비주류로 불리는 사람사랑계열은 7개 대학에서 당선됐다.

이는 당초 학생운동권의 고진이 예상된다는 전망과는 달리 여전히 운동권 학

생회가 강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운동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것과 함께 학생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학생회 선거에서 공안기관의 탄압과 학교당국의 선거개입이 극심했다는 대, 대표적으로 서울대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당선자인 정병도, 배병환군이 지난 22일(토) 하내 침탈로 강제연행됐으며, 지난 24일(월)에는 한양대 총학

생회 정·부 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조영호, 이주현군이 하내 산장전 도중 사복 경찰에 의해 연행,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선거의 특징은 △각 단위 총학생회 평가와 공약중심의 선거운동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선거문화의 혼란 △상당수 특검 결과에 대한 반감이나 무관심이 아닌 전반적인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확산 등이다.

▶관련기사 8면 사취부

공황을 아시나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지 우리의 입거려·먹거려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생활 전반에 퍼져 있을 정도인 많다. 우리의 시장을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에게 완전히 개방당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이제 단순히 상품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산 과정에 직접 자신들의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물론 국내 상위 재벌들도 '세계경영' 등을 외치며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문제는 재벌의 자본보다는 국민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대환을 받지 못하면 경제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국가 소득 대부분이 재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시장에서 재벌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경제가 무너진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공황은 있다.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기 흐름상 있는 것이다. 경제는 공황·불경기·황기·호경기·호경기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세계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통해 초국가 독점자본이 생겨게 되었고 이제 공황은 모습을 바꾸었다. 일부분의 산업이 아닌 금융공황으로 시작해서 국가경제전반을 마비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공황이 오면 재벌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도산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생긴다. 공황이 지나갈 때쯤이면 빈 공간은 외부의 자본이 채우게 된다.

▲한때 대국 바트와의 가치 폭락으로 아시아 일대가 환율공포, 즉 금융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다. 그 당시 환율을 움직인 것은 다름아닌 국제무기이었다고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IMF라는 것이 한국에 선했다. 엄청난 금융규모를 가진 IMF는 능히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IMF와 같은 금융규모를 가진 초국가독점자본이 있다면 한 나라 경제를 초조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은 그들의 자본이 직접 무자비할 수 없는 국가를 엄청난 규모의 금융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만 외치는 난무했다. '한국경제 위기는 단기적이다', '한국경제 회복 가능성 있다' 등 워낙 뉴스가 번갈아 보도되었다. 이런 보도에 따라 정부는 웃고 웃었다. 마치 우리 경제에 대한 처방을 재정입법을 비롯한 유리 정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외산뉴스, 정확히 말하면 외국정부와 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경제에 대한 장미빛 미래의 보도가 갑자기 퇴색하는 것이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의 한국경제에 완전개입하려는 의도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나 큰 비약일까.

허윤숙

서울 류종렬 총학생회장 선고공판 5일(금)

지난 10월 16일(목)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학교법원에서 연행된 뒤, 구속·기소된 서울배움터 31대 총학생회장 류종렬(서양·영어 4, 재적)이 지난 21일(금) 진행된 구형공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았다.

류종렬 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16일 교내시위 후 줄곧 수배생활을 하다 한층원 대의원대회참가, 전제학생대표자의료집회의 이적성 등 8개의 혐의가 추가되어 결국 경찰에 연행되었다. 연행 후, 총학생회측은 영치구미면에 힘을 쏟는 한편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지 면 안 내

- 총인 18대 총학생회와 평가 3면
공안탄압에 대학원까지... 열심히 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탓에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한해.
- 민간노동자의 정지세탁 4면
영국 민간노동자의 정치세탁의 결심, 노동당은 집권하기까지 반세기여가 넘는 인고의 과정을 거쳤는데... 타산지식이란 말은 이럴때 써야.
- 서울배움터 공안정황을 점검한다 6면
대강당, 소강당, 교수회관, 소극장의 무대·조명·음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는데, 수직없이 발발하는 재이군.
- 이명박교수 시민주의당 항구 시인의 진상 8면
결함, 이명박 교수가 집필한 '나는야 통일일대' 책의 이적성이 집니다 사 전구속정황을 청구한 일이 있었는데, 공안탄압을 하면 대통령이 바뀌나?
- 인명만 중장 4년을 평가한다 10면
국책대에 대해준은 성과를 많은데 피생기문명이 많았나? 피부로는 늦게입니다.

공안탄압을 반대합니다!

또여? 인제 안속아!

실했했습니다!

선거때면 어김없이 얼굴을 내미는 정권의 공안 분위가 조성. 권대에도 강풍은 어찌 없습니다. 박창의 교수(사학), '의합동신' 관련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복역중. 이장희 교수(법학과), '나는야 통일 일대'와 관련된 이적표현을 제작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영장집행시(사제로 가자) 등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언론만 속을 뿐입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인배움터 18대 총학생회 평가

힘든 1년... 학생회 강화 역부족

간부수배·연행 등으로 학자투쟁 소홀

“전환의 시대 청년의 대안, 참여와 단결의 새지평”, “사랑과 믿음의 향신 공동체 건설” 이것은 97년 윤인배움터를 이끌었던 18대 총학생회가 내건 슬로건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총학생회는 노동자 총파업,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 등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많은 성과와 오류점을 남겼다. 얼마전 윤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선거가 막을 내릴 때 또 새로운 학생회 일꾼들이 건전위 활동을 하며 98년 정책과 사업을 결정할 단계에 있다.

이 시점에서 본보는 서울배움터 31대 총학생회 평가(702호)에 이어 윤인배움터 18대 총학생회를 평가함으로써 98년 윤인배움터를 책임질 19대 총학생회가 나가기에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원갑자

은 거의 없다. 지난 1월 학부제 문제 원정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 간부들과 중앙운영위원회가 서울배움터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이며 투쟁을 하였으나 대학당국과 끝내 합의의 보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으며, 단지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세련된 투쟁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도 성과적이라든 학생회가 총학생회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점과 일대일 건설을 어느 정도 성공시켜 1학년 학생들이 학생회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등교금지위원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등을 통한 ‘학생회 보강’ △복지기금의 의의 건설(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생활 학생위원회·도서관자치위원회·기숙사 사생회·총학생회) 참여에 노력한 점과 여러 가지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총학생회 사후조사한 후 훈(동학·이르카리아 4)군은 “한총련 출범식 이후 학생회 간부들의 수배상황으로 인해 2학기부터 학생회가 재 활동을 하지 못해 학우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애교까지 존재를 알릴 수 없었다”며 “또한 공익위원 문제는 학생회에서 끝까지 대학당국에 요구,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고, 100%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련된 언론협의(언협) 실패

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복지기금 2% 조성 △체육관 건립 등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해 계속 학생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노동법·안기부법 계약’은 김영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되어, 노동자 총파업, 3·4·5·6월 한총련 총파업에 이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1학기에 걸친 집회와 투쟁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해, 오히려 외면 받게 되었다.

이는 이후 학교복지 문제, 대학당국과 마찰을 벌일 때,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에 영향을 미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또, 수없이 지적되었던 문제인 지난 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집단단위의 ‘한총련 탈퇴’ 여부로 학생회 간부들을 수배하는 등 학생자치권에 대한 탄압이 고조되고, 학생회 자체가 거의 무너져나가는 점이다.

이는 윤인배움터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주)가 4년째 활동을 하면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전혀 활용될 수 없게 만들고, 2학기에 돌아오는 총

학생회 스스로 학자투쟁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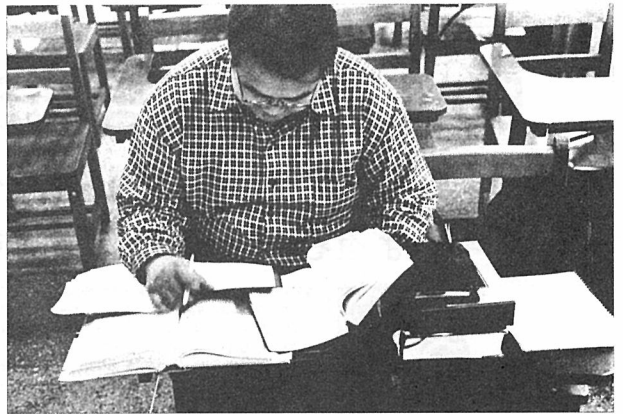
이에 대해 당시 총학생회 정책국장 박민정(동구·체고 4)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학자투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실을 복구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학생운동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회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들을 학생회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를 학생회 강화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다”며 18대 총학생회장 김영삼(동·한기리 4)은 지난해 11월 당선소감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겠다는 점에서 이번 18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고희철(인문·건이 4)은 당선소감과 다를 게 없다.

이는 97년 18대 총학생회가 학생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번 18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이전의 오류점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혁신함으로써 그들이 내세운 ‘7년의 꿈, 백만과 함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홍연하 기자



두 개도 모자라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때, 책상위에 책을 펴놓고 강의내용을 적는다. 그러나 의대학생은 그리기엔 너무 비좁다. 책 한권과 볼펜이 책상 위에 차지하고도 턱없이 부족한 책상 모습.

만나보기 - 32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오승훈군

“학우의 이해와 동의로 결정하겠다”

식당문제·총장선거 등 건준위차원에서 나설터



홍연하 기자

를 제안하기도 했지 않다. 다만 상대 후보의 한총련연계 목소리가 너무 강해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지금의 32대에는 30대 체제로 남아가는 시기다. 그러나 학생당, 교육당, 총장선거 등의 문제가 선결과제 있다.

32대 총학생회장단에게서 올해 학자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1년학자의 흐름을 잡은 뒤 그 속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식당 등의 급박한 사안을 건준위 단계에서 즉각대응하였다. 신입 단대장들 명의로 우리 입장을 대변하자는 등 여론전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올해 올해 총장선거를 바로 그걸로 지원노동 협회의 연계문제에 대해부터다. “연대”라는 부분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자기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서로의 공동체를 찾고 연대해 나가겠다. 작은 것부터 보면 총학생회 행사에도 직원·교수나 한테 어울릴 수 있게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서로 적극적으로 결합해가는 가운데 큰 관계이고, 이후에는 사업도 함께 벌일 수 있는 단계로 이행시켜야 할 것이다.

한총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한총련 혁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혁신방향은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사안에만 집중하기 보다 취업·교육 등 백만학우의 다양한 관심사를 그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법대투진연에 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우·민중의 동의가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다. 셋째, 총투표·여론조사를 벌여 한총련의 투쟁과 사안에 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한총련에 대한 입장은 ‘혁신’으로 밝혔다. “전국학생회총연합회 비상모임”



서울 총학생회선거, 어떻게 치루어졌나

학생, 선거관의 객체로 전략

정책선거 아닌 비방난무, 선관위 역할 강화해야

“내가 입학한 이래 이렇게 혹독한 선거난무는 선거는 처음이다”

이는 94학번 남학생의 말이다.

서울배움터는 97년 내내 지속돼오던 ‘고요함’을 깨고 지난 몇몇한 행정개혁으로 처리된 선거운동원과 그들이 외치는 구호, 각종 유인물이 가득했다. 그러나 점차 투표할 학생들은 그들만큼 격앙되고 있었다. 그들대면 과연 98년 학생회선거는 “그들대면 진지”였던 것인가? 무엇이 학생들을 하여금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고도 만족할 것인가?”

이번 선거는 학생들에게도 학생회에도 큰 의미를 지니는 선거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출범식 과정에서 일어난 ‘이석 씨 저지사건’ 이후 불어닥친 학생회 진보의 침체와 학생들의 무관심을 ‘전환위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회 선거가 ‘각 후보의 다양한 정책과 정책이 집중적으로 토로되고 그것이 학생들에 의해 검증되고’라는 의미를 지닌다고는 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학생들과 소통하지도, 따라서 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한 선거였다.

가장 크게 지적된 오류는 서로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었다.

총학생회 선거를 예로 들면, 기호 1번은 ‘전북고조주의세력’ 등의 표현으로 타후보를 몰아붙였고 기호 2번은 18대 총학생회에서 일한 한 1번 측을 겨냥, “당신은 자유로웠는가, 즐거웠는가”라며 맹공했다.

물론 선거기지에서 지난 학생회를 평가하거나 학생운동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의 발전을 위해 당연하다. 그러나 이미 수 조의 대의표를 통해 여론화되었던 그것이 선정적 언어로 가득찬 ‘상대방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기성정치권의 선거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기호1번이 내세운 ‘한총련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주사파’라는 흑색논리는 학생운동계정제를 학생들로부터 괴롭히는 ‘새 살 짜이책’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렇듯 자신의 정책이 정당함을 보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폄하함으로써 상대적 입지의 상승을 노리는 ‘전술’이 사용된 것은 서울배움터의 ‘정치적중도’가 열악한 지점이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학생들은 한총련 구호의 정당성을 인정하되

다만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총련연계나 전면혁신의 주장만 나왔을 뿐 본인의 성과와 인정하고 한총련 운동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예기하는 후보는 없었다. 표가 떨어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분위기 속에서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대의표, 유인물이 특히 많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수도 있었다. 동양어대의 한 후보는 타후보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한 리플렛을 뿌리기도 하고, 졸업준비위원회 명의로 한 대의표는 ‘주사파’논리라는 흑색공안장국의 논리를 그대로 끌어다 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위원회를 할 선거관위원회와 활동은 그것을 막아줄 역부족이었다. 이는 원색적인 언어가 난무하는 와중에 중립적자립한 한 학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봐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는 선관위의 활동력이 미진했던 탓도 있지만, 선거시행계획이 허술한 탓이 크다. 지난 몇몇한 부속들 부분이 보완돼 오지 않은데다, 세력은 논리하는 윤 2학기 전체학생대표회의까지 무산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비방에만 치중했던 진정한 ‘정책선거’는 이뤄지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거관의 객체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선거비용이 파다하다’, ‘선거기간 중 학생회업무가 마비된다’, ‘총학생회 특별기구의 방을 선거운동본부로 세도 되는가’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관위의 위상이 강화, 성숙한 선거의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선관위의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선거공영제를 실시, 선거비용의 남비와 경쟁을 줄이고 공공적요점을 발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 후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지출내역을 연중과 함께 공개, 이를 이것을 시에는 단점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허술한 선거시행계획은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선출한 후보가 ‘최선의 차선’이었다, ‘최악의 차선’이었던 당선자들에게는 98년 학생회선거를 진행 학생들속에서 지를 수 있는 중도를 찾아야 하는 큰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대학부

외대 학술상·문화상

공모기간: 12월 2일(월)까지
모집분야: 문학상(3천원), 소설, 수필, 희곡, 비평
학술상-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상 (금: 당선작-50만원(사-40만원) 각 작-30만원)
유치사항: 작품은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문의: 서울061-4152, 4466
문2: 서울03035-30-4112, 4580

이런 모습 보고싶지 않습니다



“학술상·문화상 지원할걸...”
아무리 원통해하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12월(금)이 지나면 정답 끝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안일함이 결국 당신을 울게 만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모습을 정답까지 보고싶지 않습니다.
12월(금)은 지루해하지요!!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 - 영국 노동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50년 걸린 노동당 집권, 장기적 인고의 과정

대중조직 기반 확고화, 정치조직전설의 전제 급격한 당 전환... 재정난·고립 초래



진세계가 주목한 올해 1월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최대의 사회집단, 민회의 중심동력으로 급부상한 민주노총

서구의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과 전문적인 정치단체로서의 '정당'은 조직상, 기능상 하는 일이 서로 판이하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정당간의 조직적 연속성은 없을지라도 '인맥적' 연속성은 강하게 존재한다. 진보정당의 당원이나 다수가 노동 출신이거나 노동조합이 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현직 노동 및 산업노동 위원장이거나 원내총무인 경우가 허다하다. 역으로 노동자들은 대체로 진보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당에 가입하기 때문에 노동당은 자동적으로 노동당원이고 단위 노동 및 연방 위원장은 노동당의 간부이며,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일부 기타 사업장의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조합원의 지위와 당적 및 당소속 국회의원직은 항상 중첩된다.

한국의 노동자들과 사이에는 현실정치에 몸담은 사람은 노동조합과 노동당에 가입하는 안된다는 독특한 도덕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정치적 대의를 움직여 실현하는 '현실 정치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정치가인 동시에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이다.

한편 노동조합이 이렇게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서구의 경우에도 인맥적 연속성은 별개로 조직과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엄연한 독자성이 유지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선거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역

할을 직접 후보를 내거나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 표를 주지 않거나 '노동조합'이 직접 대의인 정당 반대 경선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과 제도의 장치가 가로막아서가 아니라(서구의 경우 이미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법이나 제도의 장벽은 사라졌다)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으로서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백년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교훈이다.

정치세력화의 상과 경로

먼저 노동의 투쟁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성과를 하나하나 따져 보자.

첫번째 성과는 노동의 사회투쟁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각성과 선거에서의 연대적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성과는 이를 바탕으로 행할 수 있는 제도권 보수정당들에 대한 정치 참여와 연립과 협상상대로서의 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위 상승이다.

이 두가지 정치적 성과는 정치조직의 결성을 뒷받침해 줄 기반인 동시에 제도권 정당들을 압박하여 이들과 협상할 때 동원될 수 있는 정치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조직은 어떠한가? 그것은 조직적 수준과 상태가 노동의 인맥적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조직적으로는 분리된 단체이며, 아직 '정당'이 아닌 '조직체' 수준이어야 한다. 물론 '노동자 정치조직'도 노동조합들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되고 여러 지명된 인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망라해야 한다.

정치조직은 아직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독자후보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조직은 정치 노동자 독자정당이 형성될 수 있게 될 초보적 정치임무를 대행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영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영국의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과 경로를 비교하자면 이 정치조직은 1881년 헨리 M. 힌드먼(Henry Mayers Hyndman)의 주도하에 결성된 사회민주노동당(SDF, The Socialist Democratic Federation), 같은 해 시드니 웹(Sidney Webb), 버나드 쇼(B. B. Shaw) 등이 조직한 페이비언 협회(F.S. Fabian Society), 1891년 캐서린 하더웨이 주동이 되어 결성된 브래드퍼드 노동연맹(B.L.U. The Bradford Labour Union)과 비견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국의 사례를 보는 것은 영국 노동운동이 오늘날과 같은 비례대표의 정치조직 정치세력화 및 합법정당의 창당과정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더 막연하게 머리 속에서 그려던 정치세력화 노선은 입법원에 집중되는 혁명시대 독일, 러시아, 중국 등의 비합법적 정치정당의 창당 사례에 접두되어 있었다. 이 막

연한 관념에 의하면 노동자 정당은 대중적 노동운동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유가치 운동단계에서도 바깥 여론을 둘러싸고 노동자 반전 투쟁을 지하는 '불꽃'으로 이 해되었다.

영국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의 유가치에 시도된 것이 아니라 오랜 대중적 노동운동의 전성기에 시도되었다. 또 영국의 노동자 정당은 틀림없이 틀림없는 비례대표제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가 아니라 대중정당이었다. 혁명기에 지어졌던 창당된 비합법 정치정당이 아니라 비혁명적 정당이 공개적으로 창당된 합법적 대중정당이었다.

당시 영국노동조합은 자유당과 연대하여 1867년 선거법을 개정하고 남서부 노동조합의 합법권을 쟁취한 이래로 '자유당, 노동조합, 자유노선(Lib. Labism)'을 걸었다. 돈도 없고 당도 없는 영국 노동운동은 이 노선에 따라 오랫동안 선거에서 자유당을 통하여 정계에 진출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으로 선취하여 자유당과 결별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1884년에 자연스레 새로운 진보사상의 분위가 속에서 노동자 정치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처음으로 결성된 이 노동자 정치조직들도 즉각 자유당과 정치적, 조직적 결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정치이념적 차별화를 시도한 채 자유당과 구별되는 독자적 진보이념의 홍보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자 밀집 지역구의 후보 추천을 둘러싼 자유당과 정치협상의 상대적으론 가능하였다.

영국노동조합에 대해 과도기적 '정치조직'의 역할을 수행한 사회민주노동당(SDF), 페이비언 협회(F.S.), 브래드퍼드 노동

연맹(B.L.U)들은 노동조합의 정치교육과 정치후보를 담당하고, 노동조합의 연대적 투표권을 바탕으로 매번의 선거에서 보수당(토리당)에 대항하던 자유당(휘그당)을 도와 중으로 자유당으로부터 가난한 노동운동가들의 지역구 공천권을 '흔들리지 않고' 때때로 자유당에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의 수를 잠진적, 지속적으로 늘려갔다. 자유당과의 정책적, 조직적, 제휴관계는 정치조직 결성후에도 1884년부터 1900년까지 16년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자유당은 노동조합에 정치적 계산을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비호와 연호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정당의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대행해 주었다.

드레드퍼드 노동연맹 실패사례

영국 노동운동의 세 정치조직중 제일 나중에 결성된 드레드퍼드 노동연맹(B.L.U)은 자유당과의 제휴관계를 즉각 청산하려는 경향을 보인적도 있는데 이 노선은 곧 실패로 끝났다. 브래드퍼드 연맹은 1882년 총선에서 노동자 독자후보를 내어 3명을 당선시켰고 이에 고무되어 북부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립노동당(I.L.P., The Independent Labour Party)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I.L.P.는 1895년 총선에 참가하여 2명의 후보를 냈지만 단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실패를 당하였다. 게다가 이 브래드퍼드 연맹은 당으로 전환하자 즉각 재정난에 봉착했고 다른 정치세력들로부터 고립되었다. 사회민주노동당, 페이비언 협회, 노동조합 등은 독자후보론을 시가선으로 생각해서 지원하지 않았다.



영국의 노동운동은 오늘날과 같은 비례대표의 정치조직 정치세력화 및 합법정당의 창당과정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련은 대의리들이라는 극단의 자유주의에 대한 혐오로 영국국민이 새롭게 선택한 영국노동당 토니 블레어 부부

<글쓰는 순서>

1.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세력화! 그것이 무엇인가?
2. 서구민주노동당의 역할 분석한다
3. 민족민주운동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밝힌다

었다. 선거 참패이후 I.L.P.는 노선을 바꿔 정치세력화를 준비하는 정치조직수준의 정치활동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토리당 정부의 정치적, 사회적 노동탄압이 고조된 1890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호기가 찾아왔다. 노동조합, 사회민주노동당, 페이비언 협회 등도 이때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비호'를 기피하는 자유당과의 정통적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정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대대적 영국 노동조합총협의회(TUC)는 모든 정치조직들의 통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의 덕택에 통합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00년 2월 22일 22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런던회의에서 노동자 대의인 위원회(L.R.C., The Labour Representation Committee)가 임시 중앙당으로 결성되었다. 사회민주노동당(SDF) 2명, 독립노동당(I.L.P.) 2명, 페이비언 협회(F.S.) 1명 7대 노동조합 7명, 도합 12명의 이 위원회는 독자후보결정과 기금조달결정과 기금조달인수를 맡았다. 노동조합 회원의 10%정도를 확보한 이 위원회는 결성과 동시에 당헌 선거에서 시험삼아 15명의 후보를 내어 2명을 당선시켰다.

영국노동당의 탄생

총선후 노동의 위원회 가입율이 급증하고 자유당으로 진출했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후보로 탈취, 귀향함으로써 L.R.C.는 1906년 선거에서 29명의 의원 당선자를 내는 비약적 발전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조직명칭을 노동당(Labour Party)으로 바꾸고 정식으로 부활하였다. 나아가 노동당은 1910년 선거에서 42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득표율은 5.8%에서 13.3%로 끌어올렸다. 이 후로는 계속 이어져 1920년대에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다. 물론 노동당은 자유당과 결별한 후에도 하원에서 자유당과의 협력에 오래 지속하였다.

영국의 이 체제는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있어 소중한 몇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먼저 일상적인 노동자의 정당은 일순간에 창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숙성을 요하는 긴 과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독자정당을 결성하기 전까지 제도권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 줄 후유정당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 창당에 앞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과업을 결정하여 미래의 정당을 준비, 개입할 정치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정치조직은 하나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특히 유로 총파업을 거처서 정치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있는 공감을 하고, 그 조직방식에 관해 여타의 사회운동진영과 실천적이며 진지한 모색을 함께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발전경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화정도를 비롯한 현재의 조직의 상황과 수준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조직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규

<전국민민주노동조합연맹 선전부장>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볼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 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상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렇게 —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관유리 · 관유리 · 유리섬유 · 유리장식유리 · 건축용안전유리 · 자동차안전유리 · 경질유리 · 실린트

안병만 총장 4년 평가



개혁 · 화합 · 발전... '명분'에 그쳐

학원3주체의 대표로서의 역할 미흡

<글 쓰는 순서>

1. 우리학교 역대 총장사
2. 첫 직선총장의 출범과정과 의의
3. 안병만 총장 4년 평가
4. 차기총장의 상과 과제

'우리 외대는 사학의 명문으로서 질정 기를 맞이하였습니까' 최근의 급변하는 대내외 교육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저의 우리 대학이 무엇을 해서는 안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과 비전을 축적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학년을 준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자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고 명문대학'으로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저의 소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학간의 우수학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지는 위기상황에 돌입한 것이 분명한 사실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대학은 과연 현재의 교육여건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둘째, 우리 대학은 현재 구성원간에 응집력 있는 것은 없는가? 셋째, 2000년 대를 대비함에 있어 우리 대학의 비전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첫째는 개혁에 관한 질문이고, 둘째는 화합에 관한 질문이고 셋째는 발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 저의 소견으로는 개혁 · 화합 · 발전이 세가지 요소가 따로 우리 외대를 최고 명문대학으로 이끌기 위한 3대 과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글은 지난 93년 총장 선거에 나선 안병만 총장의 공약에 나온 내용이다. 이와같이 안병만 총장은 뚜렷한 소견으로 교수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이는 교수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진정 학교를 위해 훌륭한 총장을 선출해야 할 총장 선거는 사들인 출신 교수들과 외대 출신 교수들의 이익 싸움으로 가고 있다"

공약이행 점검

선거 당시 안병만 총장은 상당히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그는 개혁 · 화합 · 발전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학교가 최고 명문사립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세가지 요소에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행 정도가 미비하다.

이 중 개혁과 관련 공약인 △교수와



눈에 보이는 성과와 별은 안장들은 학생들의 몸으로 느끼지는 성과를 남기지는 못했다.

학생간의 비율이 불균형상태에 있는 어문학과와 교수충원정책을 바꾼 시점에서 해소하여 과목당 수강학생수 축소 △ 외국어회화교육의 충실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과목당 수강학생수를 20명 이내로 한정 △학문적 연구지향성 그 중요성이 높은 특수 외국어학과에의 충실성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교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며 특

히, 용인배출터의 경우 서울배출터와 달리 교수 강의 비율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특수 외국어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대학총장관계관청과 관련하여 이를 폐기하기도 했다.

또한 △희망하는 교수들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지역의 능력발전을 위해 지원교육 정책화 등 안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직원정년차기 연장 · 조정에 있어에서도 철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노조총합(노조) 조합장 장 건씨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며 "총장은 학원 3주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용인배출터 기숙사 신동 건설 △용인배출터 체육관 건립 △외대 신설 등 학생들에게 밀려나게 다가오는 공약들도 상당 수 있었으나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다.

학내민주화

안병만 총장은 당시 공약집에서 '우리 외대의 고질적인 문제는 재단 · 교수 · 직원 · 학생 · 동문 등 외대 구성원간의 갈등이 학교의 능률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점'이라고 주장하며 총장의 역할에 대해 맡기지 공약을 제시했다는 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총장과 재단의 관계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협조한 것은 협조화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 한다.

2. 총장과 교수는 교육과 연구라는 차원에서 혼연일체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3. 총장과 직원의 관계는 계층성과 친화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대학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총장은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동시에 직원들의 복지, 애환, 고통 등을 면밀히 살펴서 직원노조의 긴밀한 협의하에 문제를 해결

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요인 우수 총장실 개방을 약속하고, '열린총장실'을 표방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총장간의 거리가 많이 좁혀지는 노력을 벌인 것은 이전의 다른 총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열린총장실을 만든 주제인 총장 자신이 학생들과의 면담자리에서는 불성실한 태도를 하고, 이런 공간들을 통해 전달된 내용들이 이행된 것이 거의 없어 다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총장이 된 것이다. 또 용인배출터 학생이 총장과 면담하기 위해 직접 서울배출터로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 용인배출터 학생들의 경우 거의 열린총장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심지어는 지난 1월 학부재 문제 용인배출터 학생들이 서울배출터에서 농성을 벌일 때에는 학생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 후문으로 출근하는 일도 있었다.

또 스승과 제자사이의 유대관계를 갖 수 있도록 했다는 공약대로, 학과장 · 학생들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10명이상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서로간의 유대감 보다는 아무런 좋은 결과도 남지 못한채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결국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치게 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대해 용인배출터 19대 총학생회장 당시장 교희(한문 · 언어 4)군은 "안병만 총장이 들어서 후 학생자치권 탄압이 더 심해진 것이 사실이다"며 "총장으로서의 권위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더 고려하여 수용해주시는 스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복지

안병만 총장의 당시 공약 중에는 △공 간재배치의 일환으로 본관건물을 '진단'하여 중 · 고층 내지 신축을 적극 추진 △난방시설을 갖추어 적시에 난방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있다.

여기서 본관건물 중 · 고층은 아직까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방시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회관의 경우 오후 5시까지 지나면 거의 나오지 않는 등 대학단국이 파행적 운영을 펼쳐 학생들에게 여전한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안병만 총장이 건설한 7개의 건물 중 학생자치방으로 지은 건물은 용인배출터 후생복지관과 대천수원원 정도다. 이 중에서 대천수원원은 대충팔로 인해 아쉽지 않은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학생자치방의 건물은 후생관 하나이다.

한편 지난 6년간 대학단국에서 각종 건설과 시설설치의 비용으로 소요된 389억 원 중 대천단국이 학생자치방으로 지은 돈은 전체의 10% 정도에 그쳐 학내복지사항에는 거의 공헌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02억 원)

지난 4년간 안병만 총장은 대외적으로 '최우수대학' '교육개혁우수대학' '선진'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알맞은 우리학교를 만들었던 대총장 실천으로 부터 좋은 감명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로비백이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내에서 지난 7개의 건물을 신축한 것은 외대발전에 대한 그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이다.

대학부

만나보기 - 안병만 총장

"국책대 선정, 교수연구동 완공 등 성과"



교육기자회 학총도 성과로 생각한다.

학교발전을 위해 모금운동을 활발히 벌인 것으로 안다. 대표적인 것으로 '외대발전위원회' 등이 있는데, 재단전입금 확충과 병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확충된 기금은 목회사업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축적하려고 한다. 재단전입금의 경우, 모금과 병행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모금은 많이 할수록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재단전입금은 재단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줄어든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94년에 수립된 '외대발전 5년 계획'에 따르면 서울 · 용인 특별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개혁에 포함된 학사신설(물리, 실리) 등은 많이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국제지역대학원 등 좋은 대

학원이 신설됐고 용인은 외국학점인수권센터가 들어선다. 자연히 서울은 어문 · 사회과학쪽으로, 용인은 지역학쪽으로 특화발전할 것이다. 또 용인의 정보산업관련학과 신설도 특별발전계획에 들어있는 것이다.

행정면에서 서울 · 용인 독립부설 부속등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상당히 진척시켰다고 본다. 또, 학과신설의 경우는 학교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수도권권역 대학의 학과신설을 불허하는 교육부령 채택에 추진이 어려웠다.

세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정책이 바뀌리라 기대한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검토해졌다. 명칭문제는 논의를 해야겠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서울의 공간문제에 대한 생각은 부지는 넓지 않지만 건물의 다양한 이용을 통한 공간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상 주변부지매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자국들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린벨트 해제추진위원회도 이것을 알고 유야무야한 것 아니냐.

재단의 재산과 인사권 · 경영권 분리가 골로 없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다.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파는 처음에는 총장직이라는 어려움이었으나 후에는 생각 때문에 맡았었지만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재미있는 사실 중 가장 성과로 꼽을 것이 있다면

최우수대학 · 교육개혁 최우수대학으로 지정되고, 대학총합평가인정제(대총합)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 등이 있다. 시설면에서는 교수연구동, 외국학점인수권센터 등 건물을 많이 지었고, LAN · 인공위성 인터넷 시설 설치 등

94년에 수립된 '외대발전 5년 계획'에 따르면 서울 · 용인 특별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개혁에 포함된 학사신설(물리, 실리) 등은 많이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국제지역대학원 등 좋은 대



03이 모든 이유

○...관한 우리 국민들만 하러미 줄라에서 국민들한테 맞는 하러미가 없

<송>

○...92년 대선 전 이선실 간담대 사인 일어난 이후의 집권에 도움을 준 일이 있었음, 14대 총선 전에도 관

<석>

달력이 따로 없네

비둘기월간

왕산별

○ 축하합니다

- 10th Speech contest의 수상자
- 1위 박영아 (영어) '94
- 2위 이정주 (한 · 영) '96
- 3위 한미영 (체코어) '97

수상하신분들 축하합니다.

○ 열립니다

대: 97장례

대: 4월(목) 늦은 5시

내용: 1부 - 반만 가요제

2부 - 기복공연

3부 - 초청가수공연

(10대 서양대학 학생회)

· 하안공간의 종강총회가 있습니다

대: 2월(일)

회장 선출, 결산보고, 종강패티가 있습니다.

(순수미술 동아리 하안공간)

· 실험과 도전, 그 새로운! 11대 민족서대를 일구어갈 일들을 공개모집합니다.

김영환 · 선진국, 여론 조서국

6대 위원회 · 세계민족, 한국민족, 영성, 체육, 문화행사, 공동체

(11대 민족 서양대학 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 중국어과에서 종강총회를 합니다.

대: 1월(월) 늦은 6시

구: 공동 207호

(제 16대 중국어와 학생회)

· 14th 누리에가 신인전을 개최합니다.

대: 1일부터 5일까지

구: 학생회관 전시실

(사진반)

이문글

○ 열립니다

· 중국어과 전공학회 '중국어학회'가 심포지엄을 합니다.

대: 4월

구: 대학원 311호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중국어학회 학회장)

· 대학동 동계체육대회

주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줄여라(행3:16)

대: 12월 28일 늦은 5시 · 12월 31 이른 10시

구: 수동 기도원 (경기도 마석)

전화: 0346794-6161

주최: ccc 서울지구

문의: 396-0382

(ccc)

· 애국의대 영상사업단이 기자회견 일일호 합니다.

대: 3월(수)

구: 외대교수

영화상영 및 재차비디오 상영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리 Go group 3 과 도전지하 영상단으로 (애국의대 영상사업단)

· 무료영어회화반

· 고급반 · 생활영어

대: 매주 토요일 늦은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구: 이문동 동부주유소 앞-앞길 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문의: 012-355-2980, 921-2990

선생님-루크 허치슨, 컴퓨터학과 학생(뉴질랜드)

크리스 존슨, 법학과 학생(미국)

○ 축하합니다

· 12월 2일 수요일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16과 보보하는 게?

(G 94 정 트리아 + general)

비둘기월간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01-4183, 4152, 4466 상한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4580

영화 '중요'를 보고나서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총성

한국영화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

난 중요하다. 진지한 사람이 아는데 진지해지도록 강요하는 인간활동...

난 중요하다. 아예를 토대이며 "훌륭한 영화"라고 자랑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한미에도 못하는 -심지어는 보지도 않았을- 위선자들...

이 영화는 마티유 카소비츠라는 한 프랑스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감독은 어떤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저 외제로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고교인 친구 출신의 친구가 경찰의 고문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증오한다. 프랑스의 이념을 보여주지 위한 영화를 찍기로 한다. 그러나 신중하게 감독에게 더구나 그런 류의 영화를 지시해 줄 제작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 제작자가 그에게 말을 건다. "자네, 최자의 예산을 줄여서 영화를 만들 수 있소?"

마티유 카소비츠는 말한다. "나의 증오를 담아낼 수 있겠는가? 흑백이로 좋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모든 카메라 기법까지 다 쓰고 있다. 네가 이렇게 제작의도를 정황까지 설명하는 것

은 단순히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나 감독 개인의 작품, 출시를 위해서 나온게 아니라는 것이다. 철저한 개인의 사회에의 '증오'로 출발한 영화인 것이다.

이 영화는 파리 교외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세 젊은이의 하루를 보여 준다. 그 주인공은 유대인 반조, 아랍인 사이드, 흑인인 위베르(프랑스 흑인들은 정말 백인에 반한다. 더더욱 흑화면에서는... 이런 절대 인종차별적인 의도에서 영화는 주시되어 주절대는 이들의 일상과 욕설을 두루 담으며, 날카롭고 진지하게, 속도감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주제를 다져가고 있다. 때로 의 장면들은 보는 이를 흡입하고, 공들인 시연과 편집, 엄청난 카메라 워크는 파괴의 후미진 공격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망으로 작용한다. 이 영화에 대해 대부분이 흑인이 아니라 은유로써 사회의 증오를 표현한다.

첫 장면에서, 우주의 고요한 지구는 화염병에 의해 폭발한다.

그리고 영화 중간쯤에서, "F. U. C. K. the police!!!"의 랩과 에디트 코피의 '아나, 마이 신 미련은 없어 (파니 핑크의 라스트프렌드를 불러오는)의 사운드 믹스는 카메라의 부각과 함께

계 함으로 슬픈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하나, 고층빌딩에서 느껴지는 한기증과 건물-주인공들과의 대비를 보여준 중 인 트랙 아웃 장면은 이 영화의 압권이다.

마지막 장면. 총성이 들린다.

누구를 향한 총성인지는 이 영화를 볼 사람들의 각자 추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 영화로 인해 마티유 카소비츠는 칸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고 프랑스 캅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만들어 헌정하기까지 했다. 프랑스에서는 거리에서 남자 세 명이 같이 걸어다니는 게 유행이 될 정도였다고 하니..... 바로 난리가 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정도의 역활있는 감독은 분명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소재를 가지고 지각있는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의 정부도 그 영화의 단 한장면도 자르지 않은 채 상영 허가를 내 줄 수 있을지... 무척 의문스럽다.

이혜경
(사학·이태리대 2)

서평·소설 '가이아'

'가이아'의 복수는 시작됐다

지구환경의 파괴와 인류의 운명 그려



인류가 지구환경 파괴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면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돌아설 것이다. 사진은 열대야생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밀림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다

'가이아'란 본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자연과학 용어로서, '초기대생체로서의 지구'를 일컫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 지구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가이아 이론'은 NASA의 생명탐지공로로서 화성생체 탐사에도 참여해 바 있고, 하버드와 예일대학의 연구원, 영국영국학회의 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영국의 생물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에 의해 제정된 이론이다.

초기 발표 당시 이 이론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부 학술회의에서는 채택될 수 없었던 바, 이 이론을 계속해 채용한 것은 단지 이야기거리로서가 아닌 하나의 과학적 주장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듯 하다. 이는 글쓴이의 서론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전혀 모순이 없는 이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지 지구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일 뿐이다. 인류는 현재 지구에 태만을 하고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놀랐던가? 가이아 이론도 그렇다. 자연이란 원래 가지고 싶한 것? 아니라고 인간의 생각이 너무 광범할 뿐이다.

즐거이는 시작부터 매우 긴박감있게 전개되고 있다. 2002년 일본은 자국의 침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내고 '비밀정부'를 수립해 생존노력의 일환으로서 전쟁을 계획, 마침내 광활한 호주 대륙을 침공하기 시작한다.

호주침략의 전단계로서 일본은 한국의 독도를 점령하고 제주도 삼각주에도 전개하지만,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힘이 어느쪽으로 쏠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합과단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일본에 한국군은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미국을 위한 연합국들의 중세까지 실패로 돌아간 결국 후주는 일본에 의해 점령된다.

한편 전쟁의 와중에서 '외계지성체'로부터 지구로 날아온 메시지를 접한 과학자들은 그것이 '지구 가이아에게 수신된 '무주 가이아'의 메시지라는 것을 밝혀낸다. 그 메시지는 인간의 환경 파괴에 대한 가이아의 분노와 지구의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침략과 세계 곳곳

“지구환경과 인류의 나아갈 길, 과학적 통찰력, 정밀한 정보분석과 이를 짜르는 군사적전, 한국인의 나태함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수작(秀作)”

곳에서 점점 강도를 더해가며 반발하는 지진, 기상이변 등은 지구를 파멸시키는 인류에 대한 가이아의 복수의 징조인 것이다.

작품속의 주인공인 한국인 김정민은 인간은 물론 자연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로서 북극의 지하 강도 수리미터 아래까지 홀로 협상을 타고 내려가 수십일을 건너는 끝에

결국 가이아와의 접촉에 성공하고, 이른바 인류대사(人類大使)로서 가이아의 담판에 통해 파멸을 맞은 인류의 운명을 50년간 유예시킨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구를 온전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자명하다. 인류가 지구처럼 지구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면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돌아설 것이다. 인류는 첨단 과학기술이 아닌 동양적 관점의 '정신'에 의존함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스트 섬 주민들이 오아시스를 만드는 데까지 남은 한 그루의 나무까지 배려하며 지평을 맞이한 것을 현재의 인류와 비교함으로써, 인류는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 안에서 서로 다투는 소모전을 중지하고, 무한한 우주로 진출해야 한다는 진취적인 인류관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속에 등장하는 과학문과 최첨단 무기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정밀함과 독창성을 보여준다. 특히 외계 생명체로부터의 신호를 관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학적, 지구생리학, 생리학, 언어학 분석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에 대한 통찰, 가장 전쟁에서 쓰여지는 군사적전에 대한 묘사는 우리나 라 군사 전문가들이 한번쯤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아닐까 한다.

이 작품은 커다란 주제 이외에 한국과 일본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설정함으로써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점령에 대한 한국인의 불평은 예전과 형질상에서의 고로 인해 한국 정부는 초기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정면대응으로 뛰어들어 손쉽게 독도를 탈환시킨다. 곧바로 그 뒤를 잇는 일본군의 제주도 삼각주에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들에게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순순한 식별 치료 불 배 일본은 한국을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속의 한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작가는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민족감정상 누구도 차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무제한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 바, 한국이 민족감정에만 치우쳐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단칼에 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지구환경과 인류의 나아갈 길, 과학적 통찰력, 정밀한 정보분석과 이를 짜르는 군사적전, 한국인의 나태함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수작(秀作)이라 할만하다. 지성인이란 한 사람에게서 꼭 한 번 읽어 보아야 할 책이라고 생각된다.

박 윤 호
(대학원 아시아지역학과)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진 수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의 비를 맞으며, 목청 높여 소리쳤습니다. 외대를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런 외침들에 대한 신념이 내내 미미해지지 변하지 않아 하였습니다

- 지 난 25(화)·26(수) 서울백문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임승희 기자

1998학년도 신입학 모집 / 96 국제전문인력양성 최우수국책대학 97교육개혁추진 최우수대학(세계화분야) / 한국외국어대학교

'98학년도 신입학 모집요강 주요사항

구분	특성	학사	모집	정시	모집
입학	특성	학사	모집	정시	모집
입학	1997년 12월 20일 (토) - 12월 22일 (월)	5년 12월 20일(일) - 12월 22일(월)	1998년 1월 19일(일)	1998년 2월 4일(수) 이전	
합격자 발표	1997년 12월 28일 (일) 이전				
등록	1998년 2월 5일 (목) - 2월 7일 (토)				
수능	서울 수능 65% (일반 100%, 특목 100%, 외국어 100%, 외국어 100%)	서울 수능 100% (일반 100%, 특목 100%, 외국어 100%, 외국어 100%)	서울 수능 100% (일반 100%, 특목 100%, 외국어 100%, 외국어 100%)	서울 수능 100% (일반 100%, 특목 100%, 외국어 100%, 외국어 100%)	서울 수능 100% (일반 100%, 특목 100%, 외국어 100%, 외국어 100%)
지원	1. 전국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가진 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전국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가진 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전국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가진 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전국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가진 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전국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가진 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자격	1.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1.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2.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3.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4.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5.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자
수능	90%	100%	90%	100%	10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0%
영어	10%	10%	10%	10%	10%
일본	10%	10%	10%	10%	10%
한국	10%	10%	10%	10%	10%
수능	10%	10%	10%	10%	10%
외국	10%	10%	10%	10%	1